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여자 노홍철? 나는 여자 흥륙기”

각종 예능프로 ‘철없는 패널’로 눈길 사로잡는 김나영

여자 연예인이 방송 등을 통해 동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것은 대개 장난이거나, 팬으로서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다. 그런데 김나영(25)은 다르다. 그는 즐기차게 개그맨 이휘재(37)에 대한 애정(?)을 공개하며 관심을 끈다. 자의에 의한 고백도 있었고 타의에 의한 고백도 있었다.

그는 “휘재 오빠랑 원래 친하다.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 그 자체”라며 “하지만 자꾸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고 엮이니까 휘재 오빠 기획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제하려고 한다”며 천연덕스럽게 깔깔 웃었다.

김나영은 ‘여자 노홍철’이라는 별칭으로 뜬 연예인이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해 솔직하고 거침없는, 한편으로는 철없는 입담과 행동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그는 현재 SBS TV ‘육감대결’과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등에 패널로 출연하고, MBC드라마 ‘M-박스’는 MC를 맡았다.

“대학(서울여대)에서 아동학을 공부했는데 졸업

반 되면서 취직 준비하러니 못하겠더라고요. 토익학원을 다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즐거운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백화점 직원에서부터 한식당 설거지 일, 결혼식장에서 축포를 쏘는 일까지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했어요. 그 중에 제일 재미있던 일이 2003년 엠넷에서 VJ를 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때부터 방송일을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 욕심도 생기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만난 그는 방송에서의 모습과 똑같았다. 낙천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자유분방했다. 170cm 늘씬한 몸매 덕에 모델 출신이나가는 질문을 종종 받는 그는 “지나해 초만 해도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연히 ‘텔런트다!’라고 수군했는데 요즘에는 ‘김나영이다!’고 이름을 불러줘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김나영은 “‘여자 노홍철’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은 ‘여자 흥륙기’가 되고 싶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Go board game advertisement for 'The Last Move' (마지막 변수). Includes a Go board diagram, rul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lub.

Table with 2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EB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Knowing the fate of today's fortune). Includes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Each column includes a topic, a short dialogue, and key vocabulary.